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46



▶ 47회 예고

선봉대장은 아쇼까 부왕이 순행할 수나빠란따국으로 지형정찰을 떠난다. 그런데 상업도시 숫빠라까를 눈앞에 두고 해적들에게 붙잡힌다. 정찰조 군사 몇 명은 노예로 팔려가지만 늙은 길잡이와 선봉대장은 극적으로 탈출한다.

비베깐난다, 별궁으로 와서 축원

데바 부인은 딸 데비를 위해 별궁에서 함께 살았다. 데비도 우두머리 시녀가 거들어주는 것보다 어머니의 보살핌이 더 편했다. 데바 부인은 시녀들을 데리고 데비의 산후조리를 도맡다시피 했다. 데비가 아버지 데바를 위해 저택으로 돌아가라고 해도 듣지 않았다.

"너도 알다시피 아버지는 무역하러 이웃 나라에 계실 때가 많지. 아버지 건강을 위해 내가 할 일은 별로 없으니 걱정하지 말거라."

데바 부인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다. 데바는 베디샤 상인수장으로서 주로 까시국 바라나시에 있을 때가 많았다. 소국의 상인들이 마우리아국의 중심부에 있는 까시국으로 모여들곤 했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까시국 바라나시는 여러 강이 합류하는 강가강을 끼고 있어 상인들의 물건 운송이 대단히 편리한 도시였던 것이다.

"난 마힌다를 보고 있기만 해도 행복하단다."

데바 부인은 마핸드라를 마힌다라고 불렀다. 데비도 마찬가지였다. 산스끄리뜨어보다는 아반띠국 평민의 말이 입에 붙어 있기 때문이었다. 데비가 아기 이름을 부르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

"마힌다야!"

아기가 데비와 데바 부인을 쳐다보며 머루알처럼 검은 눈을 반짝였다. 잠시 후에는 방긋 웃었다. 데바 부인이 말했다.

"데비야, 마힌다를 위해 축원해준 라다굽따 제관님이 고맙구나."

"어머니, 지금 산치 절에는 누가 있어요?"

"앙가국 짬빠에서 온 비베깐난다 사문님이 계시지. 아버지가 앙가국에 무역하러 갔다가 모시고 온 수행자님이야."

"어머니, 비베깐난다 사문님이 마힌다를 위해 축원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데바 부인은 데비의 청을 바로 들어주었다. 산치 동산에 있는 절이 개인 원찰이기 때문에 비베깐난다 사문을 데려오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었다. 데바 부인은 별궁으로 올 때 데리고 온 하인을 산치 절로 보냈다. 하인은 베디샤나가르에 있는 데바의 농원에서 일하다가 웃자인 저택으로 온 사람으로서 산치 지리를 환히 꿰고 있었다. 데바 부인은 하인에게 말까지 내주었다. 하인에게 데바 부인이 타는 호마를 내준 것은 비베깐난나 사문을 빨리 모셔오라는 뜻이었다. 하인이 떠난 뒤 얼마쯤 지나서 데바가 별궁으로 왔다. 외손자를 보고 싶어 참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데바는 아기를 보더니 마핸드라라고 불렀다.

"마핸드라야, 부왕님을 닮은 마핸드라야."

"여보, 나와 데비는 웃자인 말로 부르기로 했어요. 그러니 당신도 편하게 웃자인 말로 하세요."

"마핸드라면 어떻고, 마힌다면 어떻소. 아기는 똑같은 아긴데. 정 그렇다면 나도 편하게 마힌다라고 부르겠소."

"데비야, 네가 부왕님께도 말씀드려라. 산스크리트어 마핸드라가 고상하긴 하지만 이곳 말로 정겹게 부르자고 말이다."

"네, 어머니."

데바는 이름보다는 자신에게 다가올 이익을 두고 계산하기에 바빴다. 아쇼까 부왕이 수나빠란따국으로 순행을 떠나는데 자신도 동행하기로 했던 것이다. 그곳의 상인수장을 만나게 될 텐데 그것은 데바의 오래 전 꿈 중에 하나였다. 데바가 눈을 지그시 감은 채 말했다.

"여보, 부왕님께서 나에게 큰 선물을 주었소. 우리 마힌다 덕분이오."

"마힌다가 복덩어리군요."

"그렇소. 수나빠란따국으로 순행 가실 때 나도 동행하기로 했소. 나에게는 참으로 큰 선물이라오."

"수나빠란따국은 당신이 무역하러 가서 늘 성사를 시키지 못했던 나라가 아닌가요?"

"다른 나라 상인수장들에게 거래에서 늘 밀리곤 했지요. 그곳의 상인수장 수완에 놀아난 것이오. 그러나 그곳 상인수장을 통하지 않고는 큰 무역을 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라오."

큰 무역이란 해외무역을 뜻했다. 수나빠란따국의 숫빠라까 항구 상인들은 큰 배로 페르시아와 이집트까지 오가며 무역을 했으므로 마우리아국에서 볼 수 없는 보석과 물품들이 많았던 것이다. 따라서 수나빠란따국 상인수장은 해외무역을 독점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번에는 부왕님과 함께 가니 그곳 상인수장도 별 수 없을 것이오. 부왕님께 접근하려고 내 비위를 맞출지 모르오. 벌써 수나빠란따국에서는 내가 부왕님의 장인이라고 소문이 났을 것이오."

데비도 마음이 흐뭇했다.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아버지 데바를 돕고 싶었는데, 마힌다 출생 자축연에서 아쇼까가 순행지 동행이라는 선물을 주었다니 은근히 행복했다.

"아버지, 저도 기뻐요. 마힌다가 벌써부터 행운을 가져다주는군요."

"데비야, 마힌다를 한 번 안아보고 싶구나."

데바는 아기를 안고 방안을 한 바퀴 돌았다. 아기가 낯선 데바를 보고는 미간을 찌푸리며 울상을 지었다. 그러자 데바가 얼른 데비에게 아기를 건네주었다.

"아버지, 순행은 언제 떠나요?"

"그건 비밀이란다. 내 생각으로는 한 달 이내에 떠날 것 같다. 빠딸리뿌뜨라에서 온 선봉대장이 먼저 지형을 정찰하러 떠났단다."

데바 부인이 말했다.

"이 모든 행운은 산치 절에서 사문님들이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한 덕분이에요. 데비야, 그렇지 않니?"

"네, 어머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사문님들이 기도를 하면 다 이루어졌어요."

붓다의 사끼야족 후예다운 말이었다. 조상 가운데 고따마 붓다가 계셨다는 것을 긍지와 자랑으로 여기는 사끼야족 후손들이었던 것이다. 데바가 산치에 절을 세운 것도 조상 중에 불세출의 성자 고따마 붓다를 흠모해서였다.

데바가 내성 저택으로 돌아간 뒤, 궁중제관이 또 왔다. 시프라강 강물에 몸을 오랫동안 적시며 기도해온 궁중제관들 중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제관이었다. 아쇼까가 아반띠국의 부왕이 된 이후 모든 정사를 낱낱이 상의해온 측근 제관이기도 했다.

"부왕비님, 부왕님께서 가보라고 해서 왔습니다. 마핸드라 왕손님은 어떻습니까?"

"덕분에 마힌다는 무탈합니다."

데비는 일부러 '마힌다'에 힘을 주어 말했다. 마힌다가 왕가에서 권력을 얻기보다는 평민들과 함께 존경을 받으며 살기를 바랐다. 데바 부인은 데비의 마음을 아직 알지는 못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기 이름이 마핸드라보다는 마힌다가 더 친근한 것은 사실이었다.

"제관님, 마힌다가 더 사랑스럽지요?"

"웃자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이름이오."

"그래서 우리는 마힌다로 부르기로 했어요."

"아, 그런지 몰랐소."

늙은 궁중제관은 바로 아기 머리에 손을 얹고 축원을 시작했다. 아기가 병 없이 건강하게 자랄 것, 훗날 마우리아왕국에 영광을 더하는 왕손이 되어달라는, 지난번에 축원했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었다. 그래도 데바 부인은 데비와 달리 고마워서 궁중제관을 정중하게 예우했다.

"짜이를 드시겠습니까?"

"달콤하고 따뜻한 짜이는 언제나 좋지요."

늙은 궁중제관은 데바 부인의 호의를 거절하지 않았다.



"짜이는 인드라신도 즐겨 마실 것 같아요."

데바 부인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우두머리 시녀가 베란다로 나가 짜이를 토기잔에 담아 들고 들어왔다. 밖에는 데비와 데바 부인이 아무 때나 짜이를 마실 수 있게끔 준비해 두고 있었던 것이다. 늙은 궁중제관은 짜이 한 잔을 마치 귀한 술을 마시듯 조금씩 음미하며 흡족해했다. 짜이가 자신의 콧수염에 묻자 아까워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말했다.

"데바 부인, 인드라신이 내린 차가 있다면 바로 이 짜이일 것이오. 하하하."

궁중제관이 크게 웃는 바람이 아기가 놀랐다. 고개를 젖히면서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자 궁중제관이 도망치듯 뒤뚱뒤뚱 방을 나갔다. 늙은 궁중제관의 우스광스런 모습에 데비가 웃었다.

다음날 오후.

데바 저택의 하인은 어김없이 별궁으로 비베깐난다 사문을 데리고 왔다. 데바 부인은 비베깐난다 사문을 베디샤나가르 농원으로 초대하여 공양을 올린 적이 있지만 데비는 처음으로 상면했다. 데바 부인과 데비가 베란다까지 나가 비베깐난다 사문을 맞이했다.

"나마스떼!"

비베깐난다 사문은 하인이 베란다 입구에 갖다 놓은 항아리의 물로 손과 발을 씻은 뒤 방으로 들어왔다. 데비가 비베깐난다 사문에게 두 손을 모아 합장하면서 말했다.

"사문님을 뵙게 되어 너무나도 기쁩니다."

"부왕비님께서 초청해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비베깐난다 사문이 합장한 손을 이마까지 올렸다. 데비는 비베깐난다 사문이 말할 수 없이 자애롭다는 것을 느꼈다.

"멀고 먼 앙가국에서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앙가국의 수도 짬빠성에서 왔지요."

"짬빠성이라면 다르마 왕비님의 고향이군요."

"그렇습니까? 고타마 붓다의 제자 소나 꼴리위사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비베깐난다는 데바 부인과 데비를 위해 짧은 설법을 했다. 설법은 붓다와 소나 꼴리위사의 일화였다.

소나는 몇 년을 쉬지 않고 정진에 정진을 거듭하였다. 그러나 깨달음을 얻기란 쉽지 않았다. 소나는 비탄에 빠졌다.

'애를 써도 이루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집으로 돌아가 착한 일을 하면서 복을 짓고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소나는 집으로 돌아갈까 하고 심각하게 고민했다. 그때 붓다가 소나의 마음을 알고서 말했다.

"소냐여, 너는 세속에 있을 때 비파를 잘 탔었다지?"

"네 그랬습니다."

붓다는 잠시 침묵한 뒤 소나를 타이르듯 말했다.

"네가 비파를 타려고 그 줄을 고를 때 너무 조이면 어떻더냐?"

"소리가 잘 나지 않습니다."

"줄을 너무 늦추었을 때는?"

"그때도 잘 나지 않습니다. 줄을 너무 늦추거나 조이지 않고 알맞게 잘 골라야만 맑고 미묘한 소리가 납니다."

"그렇다. 너의 정진도 그와 같이 해야 한다. 너무 조급히 하면 들뜨게 되고, 너무 느리게 하면 게으르게 된다. 그러므로 알맞게 하여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도 방일하지도 말아라."

순간, 소나는 머리에 벼락을 맞은 듯 충격을 받았다. 깨달음을 얻지 못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바로 자기 자신의 태도에 있었던 것이다.

비베깐난다 사문은 설법을 마치고는 아기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원했다.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비파와 같은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며, 어른이 되어서는 무슨 일을 하든 집착하지 말고 또한 방일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축원했다. 데비는 비베깐난다 사문의 축원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다. 마힌다가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비파와 같이 성장해서 어른이 되기를 바랐기 때문이었다.〈계속〉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을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문 의(예약) : ☎ 010-5282-7292 ■ 등록번호 : 138-50-00260

강남구 논현동 기공소리 통증치유명상센터 '현대의학으로 안되는 모든 통증 치유'

●●●●●● 기공의 대가 처명선광 ●●●●●●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전)IBS 1호 연구단장, (전)KIST 뇌과학 연구소장)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

전통예술 | 자체제작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법고

법당천도법고

태 징

목 어

경기도

경기도 하남시 산곡북로 49-50
031)793-3906
010-5264-3906

계좌번호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고제작 | www.yangjikukak.com